

2023 한일음악교육실천교류회 보고서 Korea-Japan Symposium for Music Education Practitioners Report

김일영*
Ilyoung Kim

2023년 2월 18일 한국음악교육학회와 일본음악교육학회가 공동주관하고 일본음악교육학회가 주최한 한일음악교육실천교류회는 “ICT를 활용한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을 주제로 온라인 상으로 개최되었고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음악교육학회 전임회장이신 김미숙 교수님과 일본음악교육학회의 곤도 아츠코 회장님의 인사와 함께 미야자키대학의 스가 히로시 교수님과 고치대학의 김규도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유아, 초등, 중등, 대학교육 분야로 나누어 한국과 일본의 실천사례를 보고하였고, 각 주제발표 후에 20분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유아 음악교육 분야의 한국 발표자는 유은숙교수님으로 ‘Chrome Music Lab을 활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었다. 음악의 기본요소와 개념 이해를 돕는 기능을 가진 Chrome Music Lab의 14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예비유아교사 과정에서의 활용 예시를 제시하였다. Chrome Music Lab은 음의 높낮이를 이해하고 선율을 만들거나, 리듬 창작과 연주, 3화음 이해, 그림의 모양이나 색, 위치에 따라 변형되는 소리를 만들기 등 음악 개념 및 음악만들기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쓰쿠바대학 박사과정인 나카조 코이치가 ‘유아의 음악 표현에서 기록을 활용한 실천연구’라는 주제로 두 가지 사례를 발표하였다. 사례1은 ‘보육교사와 MIDI의 의미 파악하기’였다. 유아들이 2옥타브의 MIDI키보드로 연주한 것을 태블릿의 가라지밴드를 연결하여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각자의 ‘00다음’을 발현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재미를 느끼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사례2는 ‘유아가 음을 루프하는 활동’이었다. 마이크와 루프머신을 활용하여 여러 장소에서의 발소리를 녹음한 후 소리의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일본 보육기관의

* 한국음악교육학회 부회장

ICT환경의 격차 해소와 유아 음악표현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초등음악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최미설 박사님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초등음악창작 수업사례 및 시사점—디지털 매체와 인공지능 활용 수업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었다.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운드트랩(Soundtrap)을 활용한 그룹 음악창작 수업사례, 인공지능 기반 음악 프로그램인 두들 바흐(Doodle Bach)를 활용한 개별 음악 창작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 음악적 ‘의도’를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루프, 인공지능과 같은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소리탐색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도구에 대한 교육과 숙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음악과의 ICT를 활용한 수업실천—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대여한 태블릿 활용을 통해서’라는 주제로 고키시 타카히로(사이타마현 도다시립 도다히가시초등학교)가 발표해주었다. ‘GIGA스쿨 구상’이라는 일본의 교육개혁으로 개인 태블릿을 사용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교육적 변화를 성찰하였다. 연구자는 ‘하이브리드형 학습’ 즉, 학교와 가정의 연계학습에 기반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주, 감상, 창작활동에서의 태블릿 활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태블릿은 ‘코트’연주 동영상을 녹화, 녹음, 재생하여 서로 비교해보거나, 개인의 기호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여 비교감상하기, 송메 이커 작곡 웹 앱을 활용하여 화음으로 선율만들기 등의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태블릿 활용한 과제물의 객관적 평가와 수업실천 정리 분석 및 개선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태블릿은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법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어시스트 툴’로서의 효과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중등음악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김정태 교수님이 ‘음악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기악, 창작 수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었다. 연구자는 싱크룸(Syncr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장소에서 싱크룸에 접속하여 소규모 국악합주 등을 실시해보고 온라인 합주 시 연주의 딜레이 현상없이 원격합주가 가능함을 밝혔다. 학교 내는 물론 학교 간 온라인 합주로 협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밴드랩(BandLap)을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 소재의 고등학교 간의 협업을 통한 창작 수업사례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에 관한 응답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학교 간 혹은 나라 간 음악적 협업을 확장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중등음악교육 분야 발표자는 사이트 타카후미(홋카이도교육대학 부속쿠시로 의무교육학교후기과정)로 ‘태블릿을 활용한 창조적인 음악과 수업설계—창조적 아웃풋을 목표로 한 수업실천—’이라는 주제로 해주었다. 1인 1대의 태블릿 도입으로 가속화된 ICT활용의 방안으로 로이로노트를 통한 구성원 관리와 창조적인 아웃풋 학습을 제시하였다. ‘로이로노트·스쿨’은 자료나 과제의 배포,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수업지원 크라우

드로 자료제시-사과의 가시화-리플렉션-아웃풋 제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의 결과로 연주 영상, 악보, 인터뷰, 감상문 등을 태블릿으로 제출함으로써 창조적인 아웃 풋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네 번째로, 대학의 음악교육에 관한 실천 보고는 한국의 권수미 교수님이 ‘음악교육의 위기와 도전의 시기’라는 주제로 해주었다. 연구자는 COVID-19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상황에서의 원격 비대면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 매체와 방법을 소개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화상도구와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동영상이나 학습 콘텐츠를 음악 원격 수업 운영에 활용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원격 실시간 음악 레슨을 위한 장비로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된 컴퓨터, 인터넷, Zoom이나 Skype와 같은 플랫폼 계정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인터넷 접속이 약한 곳에서는 원격 동영상 음악레슨을 활용하며, 용량이 큰 동영상은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는데, 교사의 시연이나 설명을 반복하여 돌려보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비전문가들도 무료 앱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앱 인벤터로 리코더 학습용 앱이 제작하기도 하였다. 효과적인 원격 음악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서 원격 음악레슨 시 소통하는 방법, 악보제공 방법, 과제제출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원격으로 운영되는 음악대학의 전공실기강좌는 그 특성에 맞는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음악교육의 본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 대학의 음악교육에 관련하여 사카이 유야 교수님이 ‘대학 음악교육실천에서의 ICT 활용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3가지 사례를 발표해주었다. 먼저 교양교육의 사례는 Synthesizer V를 활용한 노랫소리 만들기과 BandLap활용 원격협동 음악제작 활동사례를 소개하였다.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위한 초등 음악과 지도법 강좌에서는 On-Demand 영상시청과 ICT를 활용하여 피아노 코드 반주학습이나 음악만들기를 과제로 제공하였다. 중등교원 양성교육을 위한 중등음악과지도법 강좌에서는 음악 ICT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교재나 교구의 개발에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발표를 마지막으로 한일음악교육실천교류회의 발표가 끝났다.

이번 한일음악교육실천교류회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음악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난 3년간의 ICT 활용 수업사례와 연구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음악교육에서의 ICT 활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유아의 음악 개념 형성과 음악 창작 및 표현에 활용되는 ICT의 종류 및 수업 사례, 디지털 매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등 음악창작 수업 사례 연구, 음악전용 플랫폼과 태블릿을 활용한 중등 음악수업 사례 연구, 대학의 비대면 음악수업에 사용된 ICT 장비와 프로그램 등 학교급별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음악교육의 ICT 활용의 현주소와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주제별 발표 후에 가졌던 연구자와의

토의 시간은 발표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 한일음악교육실천교류를 통해 음악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ICT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유아교육을 비롯한 초·중등 및 대학의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ICT 활용에 따른 교수법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미래지향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추구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